

# 여름엔 시원 겨울엔 따뜻 '웰빙 하우스'

## ■ 전원주택 인기 통나무집

통나무집은 전원주택의 재료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아이템이다. 원목이 주는 장엄함과 가공되지 않은 목재에서 자연 친화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탁월한 습도조절 능력과 소음을 빨아들이는 흡음력은 물론 콘크리트의 4배, 벽돌의 6배에 달하는 단열효과도 통나무집의 장점이다. 또 콘크리트의 16배, 벽돌의 6배에 이르는 통풍효과 등 웰빙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전원주택 소재다.

◇어떻게 있나=통나무집은 작업방식에 따라 기계식과 수공식으로 구분된다. 제재기로 통나무를 일률적으로 가공하는 기계식은 편리성은 좋지만 원목이 주는 느낌이 약하다. 따라서 진정한 원목의 장점을 느끼려면 원목의 결질을 벗기는 작업에서 가공까지 수작업으로 하는 수공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공식은 또 조적(노치)방식과 목구조(포스트 앤 빔)방식, 혼합방식, 피스앤피스방식으로 나뉜다. 통나무를 수평으로 쌓아 벽체를 만드는 조적방식은 노치(notch, 통나무가 결합되는 부분에 파는 홈)로 통나무를 연결하기 때문에 통나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목구조방식은 우리나라 전통 한옥처럼 기둥, 보 등 골조만 통나무로 짓는 것으로 조적방식에 비해 공간구성이 자유롭고 다양한 마감재로 최대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조적방식과 목구조방식을 혼합한 혼합방식은 하단은 조

적방식으로 통나무를 쌓은 뒤 그 위에 목구조방식의 통나무를 올려 조적방식의 웅장함과 목구조방식의 간결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피스앤피스방식은 짧은 통나무를 쌓아서 만드는 만큼 습도조절 능력이 향상된다.

통나무집에는 보통 가공이 용이하고 비중에 비해 강도가 높은 침엽수가 사용된다. 북미산 통나무의 대표적인 수종인 '더글라스 피'는 내구성이 뛰어나 주거용 건축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 '헬록', '라디에타 파인' 등 건조와 가공이 좋은 원목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져

짓는 것이 귀찮다면 전문업체에 의뢰해 이동식 통나무집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가구공단에 있는 한국목재산업(대표 정해원, 061-331-1848)은 국내 최초로 이동식 통나무집을 개발한 업체다.

지난 1999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400여채의 이동식 통나무집을 공급했다. 이동식 통나무집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통나무집을 완성한 후 원하는 장소에 옮겨 설치만 하면 된다. 한국목재산업은 공장에 제재소를 비롯해 목공소, 건조실, 작업장을 갖추고 북미산 '더글라스 피'와 러시아산 '적송'으로 5~12평의 이동식 통나무집을 지어 판매하고 있다.

12평형의 경우 거실과 안방은 물론 부엌, 화장실, 샤워시설까지 갖춰 4인 가족이 거주하는데 충분하다. 12평 이하도 웬만한 편의 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어 주말용 별장이나 펜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북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하고 12평 이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평형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

주문에서 설치까지는 2개월 가량 걸리고 현장에 실제로 설치하는 데는 하루면 가능하다. 평당 가격은 300만원이며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테라스와 데크 등을 갖추려면 평당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

정해원(62) 대표는 "10평이하의 주택은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건축허가를 맡아야 하는 일반주택과 달리 해당 읍·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며 "이동식 통나무집은 통나무집의 장점을 모두 누리면서도 토목공사비가 들지 않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고 말했다.

◇'귀치니스트'를 위한 이동식 통나무집=통나무집을 직접

## 주로 침엽수 사용... 원목 장점 살리려면 수공식을 일반주택과 같이 건축허가·용도변경 신고 마쳐야 공사비 적게 들고 절차 쉬운 이동식 통나무집 각광

주거용 건축재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통나무집을 지으려면 우선 일반 전원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법적인 절차를 마쳤다면 대지를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원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원목 가공작업→기초공사→골조작업→설비와 전기 등 마감공사를 거치면 완성된다.

통나무집 짓는 비용은 원목의 종류와 실내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대략 평당 300만원선이다.

◇'귀치니스트'를 위한 이동식 통나무집=통나무집을 직접



이동식 통나무집의 여러 형태. 위로부터 5평형, 방갈로형, 북층형 구조.

## '로그 아카데미' '통나무집...' 카페 등 대표적

### ■ 통나무집 정보 어디서 얻나

자기 손으로 통나무집을 짓기 위해서는 통나무집 전반에 관한 기술을 익혀 두어야 한다. 실제 작업을 하기전에 기술을 익혀두면 통나무집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많은 실수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통나무집 짓는 기술을 익히기란 쉽지 않다. 이럴때 '로그 아카데미(log1.com)'와 같은 통나무 건축기관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로그 아카데미는 월 1회 '통나무 완전정복 강좌'와 '통나무 견적산출 강좌'를 열고 있다.

4일간 진행되는 통나무 완전정복 강좌는 조적방식의 통나무집과 목구조방식의 통나무집을 지을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이론을 교육한다. 6시간 코스의 견적산출 강좌는 실제 건축된 통나무집의 전체 건축과정을 분석해 집을 짓는데 들어간 자재의 양과 비용을 산출한다. 통나무집 건축 교육기관을 이용하다 보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해 실제 건축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동호인 활동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자기 손으로 통나무집을 짓는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통나무집 건축 관련 동호인 모임이 '통나무집을 만드는 사람들'(<http://cafe.daum.net/Logbuilders>)이다. 이 모임은 지역별로 정기 모임을 갖고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통해 기술적인 지원을 주고 받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목재산업(주) 직원들이 이동식 통나무집을 짓고 있다. 일반인들이 통나무집을 직접 지으려면 건축 교육기관 등을 통해 기술을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 위선 412번 ■ 케이블 TV 광주 42번 72번, 나주 60번, 시남권 59번, 담양 42번

**CBS**

영·흥음 사토집는인

광주 CBS TV

TV강단

TV강단